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생태연못은 순환을 통해 정화되고, 농작물 관찰에도 이용된다.

조경수의
다양한 활용



보라매공원 산책로의 나무들



조수연

(이자인 환경생태기술연구소 이사)

E-mail : eznign29@naver.com

http://www.eznign.kr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세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나무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미지근할 때가 많다. 나무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좋아하는 나무를 물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각각의 나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탓일 게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땀을 식힌다면, 바로 그 나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그 나무를 좋아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한번쯤 좋아하는 나무를 가져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원을 찾아가보자. 예고한대로 이번호부터는 공원이나 가로 등에 심겨진 나무들에 대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최근 재정비사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라매공원을 찾아보았다. 보라매공원은 여느 대형공원들처럼 위압적이거나 대규모의 인공 시설물이 적어서 인지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보라매공원

서울시 동작구의 옛 공군사관학교 자리였던 곳을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공원으로 개원하면서,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 를 이름에 사용하여 보라매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오랜 기간 활용되어 노후화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가장 최근 실시된 재정비 사업에서는 약 17만㎡(총면적 약 42만㎡)를 재조성하여 환경친화형 공원으로 탄생시킴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재정비된 후 주요 시설로 잔디광장, 에어파크, 연못(음악분수),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벽천, X-게임장, 암벽등반대 등이 있다. 맨발공원 등 휴양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도 구비되어 있는데, 비행기 8대가 전시되어 있는 에어파크에서는 옛 공군사관학교의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길

보라매공원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너른 아스팔트 도로에 한가로이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너른 도로를 차 대신 사람들이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움을 일깨우는 곳이 바로 여

기다. 간간히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걸으면 중앙에는 대형 느티나무가 시민을 반긴다. 이번 재정비 사업에서는 기존의 도로폭을 줄이고 보도폭 및 녹지를 확장하여 보행자를 우선시 하였다.

잘 알려진 바처럼 느티나무는 오래 살고 또 크고 넓게 자라, 그늘 또한 넓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네 어귀에 심겨진 정자나무가 거의 느티나무였다고 하는데, 그런 정취를 주기 때문인지 느티나무는 늘 넉넉하고, 공원의 진입부에서 반갑게 시민들을 맞아주고 있었다.

보도에 심겨진 은행나무는 다양한 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은행나무길

주도로 옆에는 보행자도 로가 마련되어 있다. 그 보행자 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심겨 있다. 은행나무는 도시 주변에 흔하게 심겨서인지,



진입하면 바로 만나게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정자목이 되어 시민들을 반긴다.

누구나에게 다양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은행나무에 얽힌 추억하나쯤 없는 사람이 있을까. 가을의 노란 은행나무길을 친구와 함께 걸었던 기억, 은행잎을 주워 책 속에 넣어두었던 기억, 은행열매를 구워 먹었던 기억. 이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은행나무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공해에도 강하고, 화재에도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심진다고 한다.

자귀나무길

여름에는 아름다운 분홍의 꽃을 피운 자귀나무가 시민을 유혹한다. 보라매공원의 자귀나무는 녹지 한편에서, 산책로에서, 그저 서있는 것만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드문드문 자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공간을 짝 차게 만드는 힘을 가진 듯하다.



자귀나무는 드문드문 심겨 있어도 강렬한 인상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

또한 자귀나무는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는 자귀나무의 잎이 밤만 되면 서로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귀나무의 50~80개나 되는 작은 잎이 밤이 되면 서

로 마주보기로 붙어버리는데, 각각의 잎들이 다 짝이 있다고 한다. 관상수로서 많이 쓰이지만 산책로에 심겨도 손색이 없는 나무다.

느티나무 터널

교목이 터널을 이루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재미있다. 느티나무가 아니라 단풍나무이거나, 백합나무, 벚나무처럼 넓은잎나무라면, 크게 자라 머리 위에서 서로의 잎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고, 또 그 사이로 걸어가며 바라보는 하늘과 잎사



느티나무 터널. 교목 터널이 주는 재미를 느껴보자.

이로 들어오는 햇살의 반짝임이 보행자를 즐겁게 한다. 특히 숲을 접하기 힘든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이런 공간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교목들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목터널을 이룰 수 있는 교목들을 많이 개발하고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

플라타너스길

플라타너스는 여름에 넓고 짙은 그늘을 주는 훌륭한 나무이다. 열매를 먹을 수 있다거나, 단풍이 아주 아름답진 않더라도, 그 넓은 잎과 수관이 주는 그늘만으로도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특히 도심에서도 왕성한 생장을 하고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며, 여름에 그 진가를 보여주는 나무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강전정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데, 전정을 하더라도 경관상 아름답고, 수목에 지나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감나무 같은 유실수가 주는 정취는 도심지 공원에 꼭 필요하다.



강력한 그늘을 주는
플라타너스아말로 여름의 나무이다

감나무길

유실수가 가로수로 심겨 있는 모습은 늘 정겹다. 보라매공원에서는 잔디광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면을 따라 심겨진 감나무가 이런 풍경을 연출한다.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색깔과 달콤함으로 사람과 새들을 유혹할 감나무가 눈에 선하다. 유실수를 특히 접하기 힘든 도시에서 공원에서라도 다양한 유실수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는 철쭉류로 보이는 관목도 식재되어 있는데, 관목을 심을 때는 교목과 연계하여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목을 식재하는 것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공원의 산책로와 가로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길들이 조성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보라매공원. 그렇지만 사용되는 수목들은 다른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보다 다양한 수종들을 이용

한 특색 있는 길들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단풍나무 터널과 느티나무 터널을 걸으면서 어느 쪽의 단풍이 더 아름다운지 감상하기도 하고, 사과나무길과 감나무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에 빠져 보기도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즉, 가로수로 흔히 쓰이는 나무를 공원의 산책로에 또 쓰기보다는 가로수와 조금은 다른 나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가을에 단풍을 보거나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를 산책로용 조경수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덩굴성 식물을 트렐리스에 올려서 터널을 만들어 활용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꽃과 향기가 가득한 수수꽃다리길·아까시나무길, 노란 꽃으로 봄을 알리는 산수유길·개나리길, 흰 꽃이 아름다운 목련길·벚꽃길, 연못이나 호숫가에는 버드나무길 등 다양한 산책로가 공원의 곳곳에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